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영산 강 상류 연안의 준평원지대에 위치한 광산군은 본래 백제의 무진주로 건훤이 후백제의 도움으로 삼았던 곳이다.

태조23년 처음 광주로 개칭되었다가 수차례의 개칭을 거쳐 1935년 부로 승격되면서 광주시와 광산군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1987년 11월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52년만에 다시 광주직할시로 편입된 곳이다.

이번 호에는 불의의 화재를 당했으나 지난 11월 광주시로 편입되어 특수건물로 지정, 협회에서 취급하는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 신속한 보상으로 재기한 세창기계(주)를 찾았다.

● 공장개요

광주직할시 광산구 소촌동 652번지에 소재한 세창기계(주)는 지난 81년 4월에 설립된 TRISUN기계(주)를 88년 2월 현재의 세창기계(주)로 상호를 변경, 새롭게 출발한 금속가공 공장이다.

6천6백11평방미터의 대지위에 연면적 1천 1백26평방미터의 공장건물에서 60여명의 종업원이 월간 15조의 타이어몰드를 생산, 인근 삼양타이어 공장으로 전량 공급하는 중소기업체이다.

주 작업장의 건물구조는 불연 구조로서 화기 및 가연성가스 등의 사용시설이 없고 금속가공인 관계로 방전가공기 공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출하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 생산과정

타이어몰드의 제작공정은 주강을 가공한 후 방전가공기를 이용해 조각공정을 거치는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다.

원부자재가 불연재이고 선반, 용접, 밀링작업 등은 화재의 위험이 비교적 적으나 정밀금속가공용 방전가공기 만큼은 주의를 요하는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방전가공기는 전극과 피가공물의 냉각, 소모방지, 슬러지냉각 및 제거를 위해 절연도가 높고



취재 / 조 태 엽 <홍보부>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고인화점의 가공유(주로 제3석유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혹 가격이 싼 석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

● 화재발생 상황 및 경위

88년 9월12일 21:33분경 작업자 김순모씨가 방전가공 준비를 위해 램을 방전부분 접촉에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가공품인 타이어몰드(-극)를 회전시키면서 동시에 방전가공기 램(+극)을 작동하였는데, 부주의로 인접되어 있는 조명용 전기스탠드의 후렉시블 튜브에 +극이 흐르는 상태에서 가공기의 램을 밀면서 -극이 흐르고 있는 타이어 몰드에 닿는 순간 합선으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화재발생 직후 김순모씨는 경비원에게 소리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종업원들과 함께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작업을 시도 하였으나 불길에 심하게 일어나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소방차 2대 출동)에 의해 21시 5분경 완전진화 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 피해상황 및 손해보상

본공장동 1층 원형방전가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본공장동의 벽체 및 천정일부가 심하게 소손 및 오손되었으며 방전가공기 3대가 소실 또는 반소되었다.

당시 세화기계(주)는 화재발생 5일전인 88년 9월 2일자로 저희 협회에 건물 및 기계시설 2억 7천 5백만원을 보험가입금액(보험료 6십만9천원)으로, 계약기간

1년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협회는 화재발생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소손된 기계의 재사용 여부를 원제작처에 의뢰하는 등 제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손해사정회사에 피해액 산정을 의뢰했다.

익월 14일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어 2천8백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가 되도록 조치했다.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박동탁 관리이사는 『보험가입 5일만에 발생한 화재사고라 손해보상이 될지, 되더라도 얼마나 까다롭게 할지, 손해보상을 해주더라도 이핑계 저핑계로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면서 『조사원이 현장에 나오면서 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일사분란하게 취해지는 업무체계를 보고는 특수건물로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면서 『의무보험이라 처음 보험가입시에는 내키지 않았으나 막상 사고를 당하고 보니 특수건물의 보험제도가 좋은제도로 생각되며, 손해보상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며 화협의 업무자세를 칭찬하고 의무보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박동탁 관리이사는 보험금에 대해 『비례보상이라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혀 무방비의 상태에서 당한 재해였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며 『이번 사고는 화재보험뿐아니라 뒤늦긴했으나 화재의 무서움을 체험함으로써 화재예방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됐다』고 한

다

● 복구후 상황

화재를 당하기 전에는 화재에 대해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나 직접 체험을 하게되자 경영진은 물론이고 현장의 종업원까지 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우선 공정상 화재의 위험이 있는 방전가공기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공간 형식적으로 실시하던 자위 소방대 운영방식을 개편하였다고 한다.

체계적인 소방교육으로 초기 진화훈련과 화재신고체제 재확립, 기존의 방치됐던 소방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정비 등 두번 다시 화재를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화재로 인한 회사 피해는 곧 나의 피해라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식하게 됐고, 각종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정리정돈, 안전수칙의 재확인 등 회사에 관심이 높아지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운영도 활발해져 노사간의 갈등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며 안전의 중요성, 보험의 고마움, 노사간의 화합 등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것이 정말 많았다고 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 노사가 일치 단결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세창기계(주)의 모습에서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